



김장도 간편하게
실속·프리미엄으로
손님맛이 분주
L1



Life

오가노이드로
의학·식품 융합
새로운 가능성 제시
L2

21C 문화인재를 키우는
아시아 중상대학



‘리프레시 가든’ 계단형 수경시설.



‘그린 시엘 포레’ 산책길. 수목 사이를 돌면서 올라가도록 조성됐다.

층층이 펼쳐진 정원·굽이진 산책길… 금련산 녹음 ‘화룡점정’

아파트의 미학(美學)

드파인 광안

단지 ‘더 파인컷’ 적용… 면 나누고 선 강조
지형 높낮이 살려 정원·산책길 입체적 배치
조경 통해 놀이·운동·휴식 자연스럽게 연결

부산 수영구 광안동은 광안리의 바다와 금련산의 숲이 가깝다. 부산도시철도 2호선 광안역에서 나와 3분가량 걸으면 ‘드파인 광안’이 눈에 들어온다. 드파인광안은 지형의 높낮이를 살려 정원과 산책길을 입체적으로 배치한 점이 특징이다. 경사면을 따라 나무를 심고 굽이진 길을 냈으며, 길이 넓어지는 곳에는 테이블과 의자를 놓아 쉬어갈 수 있도록 했다. 계단식 정원인 ‘그린 시엘 포레’, 공공 보행통로의 ‘갤러리 가든’ 등 공간의 위치와 쓰임에 맞춰 조경도 달리했다. 정원 너머로는 금련산의 녹음이 이어져 풍경에 깊이를 더한다.

드파인 광안은 광안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조성됐다. 지하 2층~지상 31층, 10개 동, 총 1233가구가 들어선 대단지다. 전용면적 36~115㎡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56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SK에코플랜트가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드파인(DE’FINE)’을 처음 선보인 곳이기도 하다.

단지에서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광안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수영교와 수영터널, 변영로 등을 통해 부산 시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고, 광안리해수욕장과 센텀시티의 백화점·문화시설도 생활권에 있다. 교육시설로는 호암초등학교와 수영중학교, 동아중학교가 가깝다. 남천동 학원가와 수영구 어린이도서관 등도 이용 가능하다.

단지 외관에는 드파인의 조형 콘셉트 ‘더 파인 컷(The Fine Cut)’을 적용했다. 면을 나누고 선을 강조한 입면에 유리를 활용한 커튼월과 측벽 특화 디자인을 더했다. 유리 면에는 하늘빛이 비치고, 저층부의 질은 석재는 무게감을 준다.

단지 안으로 들어서자 햇살에 반짝이는 초록이 눈에 들어왔다. 높게 뻗은 소나무 아래로 키 작은 수목과 풀이 촘촘히 자랐다. 별이 닿는 옅은 연둣빛으로 반짝이고, 그늘 아래 옅은 짙은 녹색을 띠었다.

중앙의 ‘아이코닉 가든’에 이르면 넓은 잔디밭과 수경시설이 펼쳐진다. 잔디 가장자리에는 수목과 휴게공간을 두고, 한 편에는 금속 구체를 쌓아 올린 조형물을 세웠다. 둥근 표면마다 주변의 나무와 건물이 비쳤다.

조금 더 안쪽의 ‘그랜드 힐 가든’에서는 층층이 단을 낸 벽을 따라 물이 쏟아진다. 그 앞에는 긴 목을 뻗고 날개를 펼친

새 조형물이 수면 위로 솟아 있다. 물을 박차고 막 날아오르는 듯한 모습이다.

‘그랜드 힐 가든’은 2층으로 꾸몄다. 1층은 유리창으로 둘러싸여 실내에서도 정원을 바라볼 수 있고, 2층은 옆면을 열어 바람이 통하도록 했다. 외부 계단과 유리 난간 너머로 정원의 풍경이 이어진다. 1층 테이블에 앉으면 창밖을 채운 낙수가 눈높이에서 펼쳐진다.

숲을 주제로 한 ‘라 클레어 포레’는 지형의 높낮이를 살려 오르내리는 길마다 다른 풍경을 만나는 산책의 재미를 더했다. 계단식 정원인 ‘그린 시엘 포레’에는 흰 난간을 따라 완만하게 돌아 오르는 길을 냈다. 길이 굽을 때마다 눈앞의 나무와 뒤편 풍경이 조금씩 자리를 바꾼다. 중간중간 작은 쉼터도 마련했다.

이곳에는 봄에 꽃을 피우는 대형 산수유와 가을에 잎을 물들이는 단풍나무, 다양한 초화류를 심었다. 붉고 노란 잎이 섞여 계절의 변화를 보여준다.

위쪽으로 발길을 옮기면 ‘리프레시 가든’이 나타난다. 대형 서어나무 아래에서 물소리를 들으며 쉬거나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정원이다. 나무 너머 언덕에는 단청을 두른 기와지붕이 보인다. 일상적인 공간과 한국적인 미학이 겹쳐 차별화하면서도 특별한 풍경을 만든다.

아이 운동 공간도 넉넉하게 들어섰다. ‘그로잉 그라운드’에는 인조잔디를 깐 풋살장과 아이 운동기구를 배치했다. 산책을 하다가 잠시 둘러 스트레칭을 하거나 근력운동을 하기에 좋다.

아이들의 놀이공간인 ‘다이나믹 그라운드’는 색부터 경쾌하다. 물고기와 산호를 닮은 모양, 물결무늬와 알록달록한 고

리가 바닷속 놀이터를 연상시킨다.

놀이터 가장자리를 길게 두른 흰 차양 아래는 어른들의 휴식 공간이 마련됐다. 일정한 간격으로 선 기둥이 바닥에 줄무늬 그림자를 만들고, 그 옆으로 테이블과 의자, 몸을 기대어 쉴 수 있는 긴 의자가 놓였다. 놀이시설과 라운지, 그늘진 보행공간이 이어지는 모습은 휴양지의 한 장면을 연출한다.

유아를 위한 ‘큐브 그라운드’는 토기 모양의 조합놀이대와 사각 패턴을 적용한 휴게공간으로 꾸몄다. 놀이와 운동, 휴식이 각기 다른 공간을 차지하면서도 산책길을 통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다.



/성채리 기자 cr56@metroseoul.co.kr

metro



단지 정원 너머로 금련산 산자락이 이어진다.



수경시설과 정원이 마련된 ‘그랜드 힐 가든’.



‘다이나믹 그라운드’에 마련된 라운지.

/성채리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 프로야구 우천 중단되면 재개까지 평균 47분
…경기 중단 사유 76%가 비
▲ 축구협회 ‘경고 댓글’에 사라지는 가짜뉴스…
“적극적으로 대처”

▲ ‘햄스트링 부상’ 삼성 구자욱, 배팅 훈련 시작…
“출혈·부종 잡힌 상태”
▲ SSG, 박정권 2군 감독과 작별…“육성 시스템
개편한다”



▲ 상대 머리채 잡은 비니시우스, 4경기 출전 정지
징계…엘클라시코 결장
▲ “암표 막자” KBO·문체부·경찰청, 포스트시즌
경기서 근절 합동 캠페인